

북스

아내가 말하는 백남준의 삶과 예술 세계

어린이 책꽂이



▲세상이 깜짝 놀란 우리 역사 진기록=기상 천외하고 신기한 우리 역사의 핫이슈를 모았다. 특이한 이력을 만든 임금, 기막힌 업적을 이룬 천재와 부자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일찍이 세계를 무대로 한 우리 조상들의 활약상과 그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났던 우리 문화유산 등이 담겨 있다. <뜨인돌어린이·9800원>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세계 192개 나라가 모여 만든 평화기구 유엔의 모든 것을 담았다.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기구 유엔, 세계 모든 어린이들을 돕는 유니세프까지, 유엔 체험단 친구들과 함께하며 세계 곳곳에 있는 국제기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한겨레아이들·1만1000원>



▲토끼 알니=제3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수상작으로 이주미씨가 썼다. 아이들이 경험할 만한 외도에 대한 콤플렉스를 소재로 가족애와 함께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의 가치 등을 그렸다. 주인공 경호는 토끼처럼 생긴 알니 때문에 늘 잊김술을 눌러 가지고 다닌다. 경호는 엄마를 닮은 것이지만,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웅진주니어·8000원>



▲날씨 천사의 선물=‘여우의 전화박스’로 알려진 일본 작가 도다 가즈요의 신작이다. 아기 곰 형제 후타와 쿠타는 단둘이 살고 있다. 야생은 하늘나라로 떠났고, 엄마는 꽃을 꺾으러 외출한 뒤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후타와 쿠타는 불안하지만 엄마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어린이작가정신·8500원>



▲지각대장=40여년간 동시와 동화를 써온 중견 시인 김구연씨의 동시선집이다. 여성 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총 73편의 작품을 담았다. 현실 세계보다는 자연의 세계에 뿌리를 낸 시들이 주를 이뤘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절제된 시어와 선명한 이미지로 아름답게 그려냈다. <섬아리·1만원>



▲한 권으로 보는 그림 명화 백과=고대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부터 20세기 앤디 워홀까지 세계적인 화가들의 대표작 350여 점을 수록한 어린이용 명화집. 시대별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대표적인 화가와 주요 작품을 소개해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신아이·1만9000원>



▲보라반 악동들 2-날아다니는 거미=꿀터 어린이 시리즈 9권. 영국에서 주는 네슬러에서 금상을 받은 어린이작가로 유명한 선 테일러의 창작 동화물 신나는 학교생활을 그린 4권의 유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웰링턴 선생님이 개구쟁이들의 답답을 맡은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은 흥미진진하다. <꿀터·9000원>

▲셋, 바다 밑에 고리가 살아요=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 현장인 ‘신안해저유물’ 발굴을 소재로 고고학은 물론, 중세 동아시아의 무역활동과 사회 등을 보여주는 역사 교양동화다. 우리나라 수중 발굴의 역사와 신안해저유물 등 중요한 발굴 성과, 수중 유물 보존 처리의 과학적 원리 등을 쉽게 소개했다. <파란자전거·8900원>

나의 사랑, 백남준

구보타 시게코 지음



“그는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해야 했던 가난한 예술가였고, 사람들이 슈퍼에서 먹는 것을 사기는 쉽지만 예술품은 정신적인 것이라 예술품을 팔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1932~2006)의 미망인 구보타 시게코(73) 여사의 회고록 ‘나의 사랑, 백남준’이 출간됐다. 연인으로, 아내로, 예술적 동반자로 백남준과 40여 년을 함께 한 그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삶과 예술 세계, 둘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실린 15년 전 신문을 아직도 간직할 채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백남준은 평생 수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정작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은 몇 장 없기 때문이다.

그는 “백남준을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빈털터리였다. 입는 것도 형편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해야 했던 가난한 예술가였다”며 “그래도 한평생 예술을 위해 모든 걸 바쳤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열정으로 늘 바빴다”고 추억했다.

어린 시절 백남준은 “공부를 잘했다. 부모는 법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길 원했는데 백남준은 음악 공부에 미쳐 집에서 격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아버지는 백남준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를 시작하던 시절 비싼 TV 세트를 구입해 구입해 자신이 곤란해했던 일 등도 소개했다.

10년간 연인으로 지냈지만 결혼한 건 거부했던 백남준이 풀린 청혼한 이야기와 ‘TV 부처’ ‘아름의 사다리’ 등 백남준을 현대미술의 거장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들의 탄생 비화도

담겼다. 또 1998년 백악관에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악수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일어났을 때 백남준의 바지가 흘러내렸던 일 등 여러 차례 소개했던 백남준에 대한 추억이 등장한다.

그녀는 백남준을 ‘비디오 아트의 조지 워싱턴’에 비유하며 그의 위대함을 강조했다. “누욕에 예술을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술은 웰스트리트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분야예요. 열심히 하면 백남준처럼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책이 짧은 예술가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음악으로 달래던 남편의 삶 등도 소개하고, 90여 컷의 자료사진도 곁들였다. 한편 책은 백남준의 장례식 당시 언론사 뉴욕특파원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었던 남정호씨가 구보타 여사의 구술을 정리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이순·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4월 광주를 찾은 구보타 시게코씨가 15년 동안 간직했던 부부의 사진이 담긴 광주일보(1995년 9월14일자 1면) 지면을 펼쳐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이효리·김연아 매력 덩어리는?

매력DNA ...

SBS 스페셜 제작팀



SBS에서 방송된 뒤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매력DNA-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같은 이름의 책으로 엮여 나왔다.

책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들을 첨가하고 심리학적 실험과 실제 인물의 분석을 통해 매력의 실체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외모가 매력에 미치는 영향, 첫 인상의 실체, 사회적 지능(SQ)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리학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오바마, 히딩크 등 리더들과 유재석, 이효리, 김연아 등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인들의 매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력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같은 특징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짓 언어와 면접 방법 등도 제시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말을 할 때 여러 명의 청중이 아닌 한 사람에게만 눈을 맞추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과 손놀림을 많이 선보인다.

제작진은 “자신이 매력 있다고 믿는 강한 암시는 많은 것을 변화하게 했다”며 “매력적인 사람들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침묵출판사·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림속에 숨겨진 무서움의 실체

무서운 그림 3 ...

나카노 교코 지음



2008년 출간 이래 많은 사랑을 받은 나카노 교코의 ‘무서운 그림’ 세 번째 권 ‘무서운 그림 3-위험한 진실의 명화들’이 출간됐다.

책은 무서운 그림 시리즈의 완결편 격으로 이전권보다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그림 속에 숨겨진 무서움의 실체에 접근해 나간다.

미의 여신 비너스의 출생에 얽힌 괴와 증오의 살해 사건, 변신한 남자에 대한 원한으로 둘 사이에 놓은 자식을 살해한 메데이아의 복수극 등 알고 보면 섬뜩한 명화 속 비밀을 낱알이 밝힌다. 무서움의 배경이 되는 그림 속 뒷이야기 역시 더욱 풍성해졌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다 빈치의 동성애 성향에서 환갑이 넘는 귀여운 고아가 마음에 새긴 전경의 참국까지 신화와 문학, 역사와 화가의 개인사를 넘나들며 즐기는 명화 20점의 대항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책은 우키요에의 이해와 시대별 변화를 담은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아트북+퍼블)를 쓴 광주 출신 미술평론가 이연식씨가 번역해 눈길을 끈다.

이씨는 서울대 미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 등을 냈다. 서예가 학정 이돈희씨의 장남이다. <세미블루·1만4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집 가진 하류층’ 세대 보고서

하우스 푸어 ...

김재영 지음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은 있지만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MBC PD수첩에서 ‘판교, 그 목망의 땅’ 등을 연출한 김재영 PD가 쓴 ‘하우스 푸어-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내 집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를 고발한 세대보고서이다. 이 책을 위해 저자는 서울 강남의 재개발 지역과 수도권 뉴타운 재개발 중산층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으며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조사를 병행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점차 붕괴되고 있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어떻게 집 없는 중산층에서 집 가진 하류층으로 전락해가는지를 고발한다.

저자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이유는 일반가계의 단순한 판단 착오 때문이거나 탐욕 탓으로 돌려버리기에는 매우 구조적인 근원을 갖고 있다”며 “정부-금융기관-건설업체-언론-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반 가계들을 부동산 덩어리는 거대한 매트릭스를 만든 것이다”고 분석했다.

다른 경제이론에서는 달리 철저한 자료조사와 팩트를 가지고 아파트를 둘러싼 거대한 거짓 이야기가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이를 이용하는 세력은 누구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도 이 책만의 강점이다. <더팩트·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GG경매컨설팅(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경매컨설팅(주)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탑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탑공인중개사 (Top Real Estate)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on area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아담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아담공인중개사 (Adam Real Estate)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on area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대인동심입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입부동산 (Daedongdongshim Real Estate)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on area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